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델' 세우자

4·19 ⇒ 5·16 ⇒ 5·18은 계승적 성공 역사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세계사적으로 빛나는 성취의 상징인 대한민국 80년사를 대립적이고 분절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 있다. 이승만정부는 4·19로 무너지며 부정되었고, 그 4·19 혁명은 5·16 군사정변이 뒤집어졌으며 5·16으로 가능했던 유신체제와 전두환정부는 5·18과 6·10운동으로 종식될 수 있었다는 식의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바라보면 그런 서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 식민기에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되어야 했고, 연이어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대한민국 출범(1948) 이후 계속 대립과 분절의 역사였는데, 그 대한민국이 불과 몇 십년 만에 자유, 안보, 번영, 민주, 인권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논리는 상식에도 반한다. 또한 대한민국 모델로 배우려하는 전세계인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5·18만 넣기에는 부담을 느꼈



던지 부산-마산 민주화운동을 함께 병기해 넣겠다는 안이다. 먼저 평가해 봐야 할 것은 과연 5·16 없이 5·18이

가능한지, 태국, 미얀마 등에서 쿠데타는 일상적이었지만 성공한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안

이나 변형된 산업국가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와 다른 길을 간 예외 사례이면서도, 가장 전형적인 서유럽 발전경로를 몇 십년만에 압축적으로 성취해낸 사례다. 자유민주질서의 확립과 경제산업적 번영, 그리고 연이은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대한민국이 만든 성공궤적에 강한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앞에서의 성공이 뒤이은 성공들의 기반을 만들어온 연속성상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 대한민국 모델을 전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 4·19는 서유럽과 미국을 모델로 한 이승만정부의 자유민주질서

남미 등 후진국 혁명과 다른 경제 패턴 이룩 대립과 분절 딛고 서유럽 발전 경로 밟아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시아와 남미 여러 국가에서 무려 수백번의 혁명과 쿠데타가 반복되어왔지만 고도 산업국가를 만들며 번영체제를 확립시킨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이집트 및 이란같은 중동 국가들에서 각종 혁명과 아랍의 봄도 많았고, 마찬가지로 중남

정적 경제번영에 기반하지 않은 성숙한 자유민주체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아직까지 성숙한 민주주의를 먼저 만들고 그 체제가 산업혁명과 경제번영을 이끌어냈다는 사례는 없다.

결국 네덜란드의 상업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근대 민주주의 모델을 만든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민주주의 수준도 결국은 안정된 경제번영의 결과물이다. 민주주의는 누가 간절히 외치고 투쟁한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과 투쟁으로 고도 산업국가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쟁하고 외쳐서 되는 것이라면 러시아와 중국혁명, 이란(1979년)과 필리핀혁명(1986년), 모로코와 이집트혁명(2011년)은 물론이고,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혁명으로 상징되는 쿠바와 볼리비아부터 민주주의가 꽃피웠어야 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투쟁이 감행된 그 어느 나라도 성숙한 민주주

정적으로 가능했고, 5·16과 유신체제도 수천년 계속된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장내고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자는 경제번영에 대한 강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다. 그랬기에 비록 한반도에 30년 넘게 연평균 9% 전후 고도성장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5·18과 6·10 민주화운동도 정착된 자유질서와 경제번영에 기반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인권체제로 더 도약하자는 연장선에 나타난 것이다.

모든 것들은 계승 축적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 K-모델로 정립된 것이다. 이승만정부의 성공없이는 4·19도 없었고, 5·16체제의 성공에 기반하지 않은 5·18을 논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치투쟁과 권력독점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대립과 분절로 몰아가고자 하는 태도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강변이면서도 한국의 성공을 세계적 보편화로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2면에 계속>

알림

역사문화탐방

5월 22일(금) 강화도 갑니다

대한인론인회 2026년도 상반기 역사문화탐방은 5월22일(금) 인천 강화도로 떠납니다.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교동도 화개정원 / 전등사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1. 출발 일시 ; 2026년 5월 22일(금)오전 8시30분
2. 출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앞
(신동아 관광버스 3대 대기)
3. 가는 곳 ; 강화도 교동도 / 전등사
4. 참가신청 ; 5월15일(금요일)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전화(732-4797, 4798) 또는 직접방문
5. 인원 ; 선착순 120명
6. 기타 ; 출발 당일 오전 8시20분까지 탑승완료

대한인론인회

인류, 반세기만에 '백투더 문'

지난 4월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귀환

'Man on the Moon' 인간이 인류사상 최초로 달을 밟은 그 역사적 순간으로부터 57년이 지났다. 이후 어언 반세기만에 '백 투더 문' 뜨거운 달 따먹기 경쟁의 새장이 열렸다.

'애들아 오너라 달 따라 기자/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우리가 어릴적 즐겨 불렀던 동요다. 그 꿈이 이제 현실화 된 것이다.

인간이 실제로 달에 살게 된다면...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것이고 그 제1호는 이태백, 제2호가 닐 암스트롱, 3호는 버즈 올드린이 될 것이다. 전설의 이태백 외에 달에 발을 디딘 인간은 암스트롱과 올드린 둘 뿐이다. 그러나 이젠 꿈을 지닌 이들이 달을 향해 너도 나도 달려갈 태세다. 그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또 한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달이 인류 제2의 생존경쟁 전쟁-우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늘의 세계강국이 된 것은 아메리카 동부로 상륙해 위대한 서부개척사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주개척의 전진기지로 달을 점령하려는 야망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을 그냥 내버려둘 강대국들이 어디 한 둘 뿐일까.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것은 지난달 4월10일(현지시간) 오후 8시7분이었다. '아르테미스 II'의 유인 캡슐인 오리온이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바다에 착수하면서 이 위대한 여정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이었다.

'아르테미스 II'는 이날 오후 7시 37분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마하 33(음속의 33배)의 속도로 빠르게 하강했으며, 탑승한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과 크리스티나 코크, 빅터 글로버, 제레미 헨슨 등 4명의 우주비행사는 자기 몸무게의 3.5~4배나 되는 3.5~4G(게이지 압력)의 중력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마

어마한 낙하속도에서 나오는 섭씨 2700도의 고온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낙하속도는 47초만에 서울~부산 거리를 주파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오리온 캡슐로 6분간 통신이 두절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으나 이 귀환 캡슐은 대형 낙하산 3개를 펼쳐 펴지면서 완벽하게 착수했다.

'아르테미스 II'는 달 뒤편을 한 바퀴 돌았고 그동안 인간의 눈으로 달의 다양한 모습을 관측하면서 앞으로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갈 때는 지구인이었으나 영웅 우주인으로 돌아온 4명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다녀온 인류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아르테미스 II'는 지구 궤도를 두 바퀴 돌고 달까지 다녀오는 동안 총 69만4천392마일(약 111만7천515km)을 여행했다.

임무를 완수한 우주비행사 4명에게는 "완벽한 우주비행사이자 훌륭한 소통 전문가, 시인이며 별들에 인류를 소개하는 외교관"이라는 찬사가 따라 붙었다.

이 영웅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2028년 달에 착륙하고 기지를 건설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임무

업체의 두번째 달 표면 탐사선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예정된 착륙지인 말라퍼트-에이(Malapert-A) 분화구에 착륙했다. 오디세우스가 세계 최초로 민간 업체가 개발해 성공한 달 착륙선이 된 것이다. 1972년 12월 15일 유인 우주선 아폴로17호의 달 착륙 이후 51년 2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착륙 직전까지 하강을 잘 하다가 달 표면에 닿을 때 받은 충격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작동을 멈추었다. 오디세우스가 시도한 세계 최초의 무인 달 탐사는 절반의 성공으로 그치게 됐다.

이듬해인 2025년 3월 6일 오디세우스의 동생 격인 달착륙선 아테나(Athena)가 달 남극에서 약 160km 떨어진 몬스 무턴(Mons Mouton) 고원에 착륙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달 도착 하루 만에 작동을 멈췄다.

민간의 달탐사 프로그램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잇단 추락사고를 내면서 달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구 중력에 다시 이끌려 소실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인 우주선의 달 탐사 성공귀환은 아폴로 11호 못지않은 쾌거로 인정된다. '세계를 그대 품안에'라며 호기를 부리던 것이 이제는 '우주를 그대 품안에'로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마무리씨 → 권영섭 ←



美, 우주개척 전진기지로 달 정복 야망

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면 시작이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다. 앞으로 무수한, 그리고 장대한 프로젝트들이 펼쳐질 것이고 지구 열강들의 우주정복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다.

한편 미국 민간 우주기업인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가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Odysseus)가 2024년 2월 1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 에서 팰컨 9로켓으로 발사됐다.

2024년 1월 8일 발사됐던 아스트로봇의 페레그린에 이은 미국 민간

오디세우스의 성공은 향후 달 탐사를 민간이 주도하는 신기원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모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다.

민간에게는 무리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하지만 민간이 달 탐사선의 설계·발사 등을 주도하게 되면 더 많은 기술혁신이 가능하고 비용 역시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하자면 나사 전체 직원은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민간기관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35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달 탐사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II'는 달에 내리지 않았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수집한 샘플이 봉인 해제되어 공개되었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 그 분석 결과 금 성분이 검출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금 나와라 뚝딱'은 기대치일 뿐이다. 만약 달나라에서 금이 나온다면 'Moon Gold Rush' 우주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

최명우(본지 편집위원·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1면에 이어서>

6·25를 남침이 아니었다는 세력이 있기에 6·25를 헌법에 넣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듯, 더 이상 왜곡이 있을수 없게 5·18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것은

5·18정신이 될 수 없고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을 만드는 수단만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균형적 이해와 역사발전의 보편성이 정립되지 않는 헌법전문은 두고두고 논쟁과 대립의 소재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계승적인 식이지, 정치투쟁을 목적으로한 밑거름이 역사인식이 결코 아니다. 5·16도 소중하고 5·18도 소중한 것이다. 식민지배에 맞선 것이나 공산주의를 극복한 것이나 모두 소중하다.

그런 면에서 세계의 성공국가들이 걸었던 보편성을 따면서도, 우리의 성공을 배우려는 국가들에게 실현가능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계승적, 균형적, 통합적 역사인식의 정립이 절실하다. ☐

6·3지방선거 민주당 ‘씩쓸이’ 하나?

국민의힘 ‘막장공천’ 후유증-중도층 표심 이탈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6·3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권력의 핵심인 16개 광역단체장을 더불어 민주당이 싹쓸이 하느냐에 있다.

6·3지방선거는 여야 간 힘의 균형이 큰 차이로 벌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의 압도 속에서 출발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결과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는 있다. 얼마 전 갤럽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8%, 국힘 18%였다. 지금은 국민의 힘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때 우세했던 서울의 국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우려는 보수의 마지노선이라는 안방 TK(대구 경북)까지 함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구의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국힘의 어느 후보에도 앞서고 있고 경북도 아슬아슬하다. 그러나 선거와 스포츠는 끝나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 간 국힘이 선전한다면 싹쓸이는 면할 수 있지도 않을까.

정당은 이념과 국가운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목적은 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지지와 신뢰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선택은 표로 결정된다. 그래서 정당은 특히 공당이라면 국가나 지역의 비전과 정책 제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한 공천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과정을 거쳐 능력과 덕망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당 민주당이나 제1야당 국민의힘 모두 공천과정에서 파장을 겪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당권장악을 속셈으로 감추고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의 수면 아래 격돌이 심했지만 똑같은 혐의라도 공천은 무죄, 컷오프면 유죄로 정리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민주당 텃밭 호남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같은 불법논란이 발생했었다. 이 지역은 다른 정치세력의



보수신문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견제를 거의 받지않아 민주당 내의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공천이 고 무위로 끝났다. 특히 대구시장 여론조사 1,2위 후보인 이진숙과 주호영

지금 국힘은 6·3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상태다. 인재영입, 참신한 인물 발탁은 보이지 않고 장동혁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에 당내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민심은 돌아서고, 정책비전도 없다. 국힘은 무능, 무책임, 무정책의 3무 정당이 되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최근 다행히도 민주당 정권의 내란청산 광기에 국민들이 식상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내란청산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선출된 권력 능력과시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조직을 와해시키고, 사법과괴법이라는 사법3권을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켜 시행하고, 이재명대통령 선거법 위반을 공소취하 했다. 또 3특검에 기한연장까지 하고서 목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국회에서 사법부 침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고 40여명의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롱하고 욕박질 했다. 검사들의 소신 있고 당당한 증언으로 소기의 성과는커녕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국정조사 실패기미가 보이자

장동혁 대표 불안한 리더십 당내 갈등 확산 민주당 내란청산·특검 강풍에 국민들 피로감

곧 당선이라는 호남지역에선 친명·친청 간 대립이 분출했지만 국민의힘 막장공천 바람에 묻혔다. 호남지역에서 국힘 후보는 선거비용도 건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능력 있는 인사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여야 후보 대결보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관심거리였다.

국민의힘은 6·3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과정에서 제1야당 공당으로서의 품격과 공정성을 잃고 난파선의 막다른 물길에 다다랐다. 이정현 공천관 리위원장은 사퇴, 복귀, 사퇴를 오락가락하면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현역 광역단체장 물갈이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났다. 오히려 서울, 부산, 충북 등 현 광역단체장의 컷오프 시사로 당내 갈등만 증폭시키

을 컷오프시켜 막장공천이란 비난만 들었다. 대구시장 공천과동과 후유증은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승리보다 당권 지키기에 치우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친 박근혜계가 친 이명박계(오세훈, 박형준)를 물리친다는 흥흥한 소문도 돌았다. 일부러 지려고 작정한 듯한 이런 공천은 정당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1996년 김영삼은 총선에서 홍준표, 이재오, 김문수 등 운동권 인사들을 영입, 보수의 이념지평을 넓혔다. 2000년 이회창은 3김 청산 명분을 내걸고 김윤환, 이기택을 물리치고 원희룡, 오세훈, 김부겸 등 새 인물을 영입했다.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온통 내란청산과 특검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의 삶과 일상은 더 힘들고 핍박한데 민주당정권의 내란 프레임에 국민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후보의 면피 후 부산시장 출마로 박형준 국힘 후보와 격차가 더 좁혀졌고, 한 평론가는 민주당 수도권 후보인 정원오, 추미애, 박찬대는 최약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낙승할 기운은 점점 빠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지지율이 높다해도 권력의 오만과 폭주가 절제를 잃으면 민심은 반드시 권력을 심판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역사다. 역사는 신화가 아니다. ☐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 ‘동상이몽’

10월 워싱턴 안보협의회 앞두고 3대조건 힘겨루기



이도선
본지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새삼 한·미 양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을 촉발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마이크 로저스(공화) 위원장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을 받고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외교 라인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책임지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이라 관심이 더 쏠렸다.

한·미연합사가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관한 후 아직까지 쥐고 있는 전작권마저 넘기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권 이래 좌파는 전작권 전환이 마치 주권 국가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과대 선전하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 실현을 여러차례 공언했고,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8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국내에 보도되자 여론에서는 “드디어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게 됐다”고 흥분하며 미국과의 일정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는 이 대통령 임기(2030년 6월 3일까지) 내이고 이 정권이 생각하는 시기와의 차이가 없다. 다만 미국은 2029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임이 새로 취임하고, 한국은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라는 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노 정권은 야당과 군부의 반대를 외면하고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날짜를 2012년 4월 17일



지난 3월14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일환으로 실시된 훈련에는 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 한국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참가했다.<연합뉴스제공>

로 못 박았으나, 이명박 정권 때 북핵 실험과 천안함 피격 등 안보 상황 변화를 이유로 2015년 12월 1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권 때 시기를 정하지 않고 상호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추진하기로 다시 바꿨다. 정권이 바뀌면서 거꾸 좌절을 맞본 좌파는 마침

1.4배나 되므로 전작권을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자국 군대의 지휘를 외국군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민족적 자존심도 자극한다.

하지만 핵 없는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는커녕 1위도 허망하다.

50기 안팎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핵탄두를 탑재할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개발에 매몰돼 있는 북한 김정은만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펜타곤에 제출됐다고 해서 흥분한 나머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더 앞당기자고 미국에 떠쓰는

북한 대책없는 전작권 전환 절대 안돼

동맹국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못을 박아 버리자는 심산이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김칫국부터 미리 마실 일은 아닌 듯하다. 전환 시기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단서가 달려 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즉, 시기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라는 얘기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일 수도 있는 형국이다.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및 안보 환경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하원 군사위 바로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말한 속내를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 결국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정상급 방산무기도 소용없다. 미군의 지원과 협조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가 존속해도 마찬가지다. 미군 대장으로 보임되는 사령관이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현행 체계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체계로 바뀌어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에서 미군을 지휘하는 나라는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도 다국적 연합 지휘 체계이지만 사령관은 전통적으로 미군 대장이 맡는다. 나토 국가들의 재량권이 훨씬 많다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좁디좁은 한반도 단일 전선을 유럽대륙 전역의 수십 개 국가와 같은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권 국가의 자존심’ 운운하며 전작권 전환을 강행한다면 누구 좋은 일 시킬지 뻔하다. 이미

것은 절대 금물이다. 양국의 갈등을 더 키우고 동맹관계에 흠집만 낼 뿐이다. 가뜰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민감 정보 누출로 한·미 관계가 잔뜩 긴장돼 있지 않은가. 정 장관은 논문이나 세미나 등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자의 공식 확인’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도 모른다면 장관감이 못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작권 전환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조건’에 방점이 찍힌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 북핵 대비책을 비롯한 선결 조건을 충족시킬 방도부터 찾는 게 순리다. 이 대통령처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공자님 말씀으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동인 한·미 동맹을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MAGA 정책 선봉

주한 미대사 지명 미셸 박 스틸 누구인가

대한민국 외교사상 첫 주한 미국대사는 존 무초였다.

미국 정부는 1882년 조선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후 한성부에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 미국 공사관은 한성부에 세워진 최초의 외국 공사관 건물이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자 에드윈 모건 공사는 공사관을 폐쇄하고 대한제국에서 철수했다.

그후 1949년 미국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있던 존 무초 특사를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무초 특사는 대사 임명을 받고 4월 20일 이승만에게 신임장과 트루먼 대통령의 사진을 전달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의 강대국 대사들로부터는 약식으로 신임장을 받아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사의 봉정식은 장엄하게 집행하도록 국무회의에서 당부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장은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 및



전 각료들이 참석해 다른 외교 사절을 놀라게 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수립과 육성에 힘써 온 무초 특사가 대사로 승격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명실상부한 맹방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로부터 77년이 지난 지금.

성은 박이요, 이름은 은주, 미국명 Michelle Park Steel,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은 일본에 거주하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 캘리포니아주로 이민, 미국시민이 된 여성이 주한미대사로 왔다.

한·미·일 3개 국어에 능통한 정치

가로 성장, 캘리포니아 정계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2021년~2025년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으로 활약하고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 의장 2015년~2021),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2007년~2015) 등을 역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하원의원의 이력이다. 이번 주한 미국대사의 지명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1년 이상 지속된 대사 공백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2기 첫 주한 미대사에 자신의 강성 지지자인 한국계 철녀 여성리더 미셸 박을 지명하면서 한·미 당사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파급될 영향력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양면 시각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미셸 박 스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공화당 내 주류 보수 가치를 대변하고 있어 반대쪽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녀가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친 트럼프 보수 인사이기에 이번 지명을 그냥 '트럼프의 트럼프(승리)'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한·미동맹 지지 및 중국의 영향력 견제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 크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하지 못한다.

문제는 한국계 철녀 미셸 박이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수행하는 트럼프의 선봉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서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고도의 외교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최명우(시사평론가·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호르무즈 해협

국제질서 새로운 시험대

'세계경제의 혈관' 교두보 잃으면 국익 손실



류종현
본지 편집위원,
컬프전 중군기자,
전 MBC워싱턴특파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혈관이며, 동시에 국제질서의 시험대다. 그런 시각에서 얼마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그 이면의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안보는 나눠야 할 책임이라는 것과 한국은 더 이상 지구촌에서 약소국이 아니다"라는 그의 감추어진 화법이다.

물론 일각의 우려도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위협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다.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우리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여가 있어야 함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하고 국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국가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자존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입지는 달레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깊은 경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회피는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분명한 것은 있다.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익은 대가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교두보를 잃으면 국제질서도 잃는다"

필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만났던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거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생전 한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미국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두보다."

이는 단순한 동맹론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축을 지탱하는 지정학적 통찰이었다. 그가 강조한 '교두보 이론'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거점으로 한국(일본 포함)을 지목한 데서 출발한다. 이는 군사적 기지 이상의 의미로서 한마디로 정치, 경제, 가치 동맹이 결합된 복합적 전략 축이라는 의미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은 이러한 교두보의 가치를 다시 부각하고 있다. 중동의 에너지 동맹이 흔들릴 때, 그 충격은 곧바로 동아시아 우방국들로 전이 된다. 한국(일본 포함)은 세계 경제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호르무즈의 안정과 직결된 이해관계를 가진다. 동시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해상 질서 유지와 에너지 흐름 보호를 위해 동맹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문제는 단순한 해협의 안전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립의 최전선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의 수혜자'가 아니라, 질서 유지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교두보는 방치하는 순간 무너진다.

교두보를 지키는 것은 곧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질서는 지금, 호르무즈에서 다시 시험받고 있다.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지된다. 호르무즈의 파도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기술동맹의 심화는 선택이 아닌 미국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힘의 공백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채워진다"는 브레진스키의 경고는 오늘날 한·미·일 3국이 단순한 전통적 우방을 넘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 공동체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이재명 정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

북한, 美-이란戰 보며 미사일 시험발사 존재감 과시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민간 무인기 대북침투에 대한 사과를 둘러싸고 한 때 남북한 간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으나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민간인들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넘어로 침투해 개성 일대를 영상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의사 교환이 이뤄진 셈인데 이것이 실질적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지 이틀 만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무력도발로 대응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공식화했다.

오히려 북한은 이란전쟁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 업그레이드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대전 변화는 드론의 등장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드론의 위력을 체험한 북한은 이란전쟁에서 이란의 사해드(저가형 자폭드론)의 효과적인 ‘별폐전략’을 실감했다고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노동신문뉴스)

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은 올 들어 벌써 7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달만 4차례 집중적으로 도발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중요무기체계’ 시험으로서 집속탄두 탑재 시험과 전자기 무기체계,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 시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유지하는 것이 이성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란전쟁이 주는 교훈은 만약 생존 자체가 목표라면 북한의 무기가 위험할수록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과거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이 15년 넘게 집권하는데 핵무기 보유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과거 이란에 고속 공격정과 소형 잠

‘악마의 무기’ 집속탄두 미사일 발사 성공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사건 사과’ 외면

으로 봉쇄한 배경에는 2만 달러 드론을 적극 활용했다는 후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폭격한 이란 핵시설의 핵물질을 가져오는 일만 남았다고 장담했다. 사실상 이란이 굴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란의 영토가 중요하고 신성한 것처럼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의 입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핵개발을 놓고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북한이 이란과의 핵 협상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 탄두를 실전배치할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은 물론 충남 천안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중동전쟁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는 과정에서 확산탄과 공중지뢰 살포탄까지 탑재한 것도 주목되는 이유다. 우리 전문가들은 발사 위치를 고려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아닌가하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따라가기엔 한계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원을 파견했던 북한이 8,000km 떨어진 이란전쟁터에서도 다시 부각되는 배경

수함 기술, 지하 미사일기지 건설 능력을 전해주고 이란으로부터 현금과 석유를 대가로 지불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우회협력 정황이 포착된 만큼 미국의 향후 대응이 궁금해지고 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동맹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

노란봉투법과 트로이 목마의 함정

기업 옥죄고 노동자 떨게하는 손해배상 '상생법'은



송종문
본회이사
(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담당 상무이사)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한국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관계'와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과거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핵심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기업)의 정의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업체(진짜 사장)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다. 둘째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정의행위(파업)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개별 조합원에게 수십, 수백억 원의 보복성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가정을 파괴하거나 노조를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오랜 입법 갈등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정부 교체 이후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했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단계로,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조 모두 반발하며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7일 포스코(POSCO)는 누적된 불법파견 소송 부담,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신정부 들어 더욱 커진 정책전환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항·광양 제철소 소속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직고용 당사자인 하청 노조까지 반발을 하고 있다. 하



민주노총이 4월10일 '노란봉투법'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미디어팬 제공)

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는 임금이나 복지 면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나서자, 포스코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하청과 원청 노조 양쪽의 불만을 동시에 달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7,000명을 기존 정규직군이 아닌 새로 만든 시너지(S)직군으로 채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는 '불확실성의 목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와 매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면, 경영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반면 노동계는 이를 '최소한의 방어권'이라 부른다. 거액의 손해배소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게 닫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트로이가 멸망한 이유는 목마 때문이 아니라, 목마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정보의 부재'와 내부의 '방심'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것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외부 압력을 기술혁신과 노사 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역(逆) 트로이 전략'이다.

경영성과 공유로 '책임있는 상생' 명문화 해야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근본적 체질 개선

용해 복지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되, 임금에서는 차이를 두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어느 한 쪽도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계의 최대 화두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트로이 성벽 위의 파수꾼들과 닮아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성 안(경영권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특권이라는 무기를 든 군단이 기업 경쟁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다.

트로이 목마가 단순히 목재 조형물이 아니었다, 노란봉투법 또한 단순한 손해배상 제한 법안이 아니다. 법안의 핵심 두 가지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기업을 하청 노조의 협상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입증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현대의 노사 갈등에서는 이 트로이의 목마를 '상생의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의 시각에서 제안하는 '상생판 노란봉투법'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있는 상생'의 명문화다. 노조의 파괴적 정의 행위가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 파업에 한해 면책 범위를 조율하는 식의 '조건부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조건적인 방패가 아닌,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대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하청 구조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이 노란봉투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원·하청 간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를 활성화하여, 법적 강제 이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진정한 기업 경쟁력은 '성문을 굳

따라서 노사 모두 유연성을 갖고 대립적 관계를 넘어 독일식 '공동결정제'의 한국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노사 갈등의 여지를 줄이는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의 성과 산정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여 '감정적 갈등'을 '데이터 기반의 합의'로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트로이 목마는 비극의 상징이었지만, 현대 경제에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가 '저임금-다단계 하청'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나가는 '혁신의 망치'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법적 명확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씻어 주고, 노동계는 불법적 수단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성벽을 사이에 둔 공방전을 끝내고, 그 목마를 타고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가 씌어질 것이다. ☞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파편’ 무섭다

7월말 세제종합 개편안 ‘장기특별공제 폐지’ 논란

지난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1가구 1주택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혜택을 줄이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집 한 채만 갖고있던 사람이 집을 팔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져서 크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왔는데 앞으로는 비거주자는 혜택을 줄이고, 세금은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매매 차액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최대 40%를, 또 10년을 실거주했다면 40%까지 더 합쳐서 최대 80%까지 더 줄여준다. 여기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혜택 40%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단기적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풀려진 명목 이익을 보정해주는 장치다.

많은 국민이 장특공제라는 이 뉴스에 놀라자 민주당은 이를 후인 20일에 그런 논의를 한 일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21일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는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을 잇따라 불러 부동산세제 개편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말 발표 예정인 여러 세제 종합 개편안에 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불거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부인하는 이유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영향을 미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견해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면제받는 혜택을 받으려면 한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하는데 그 양도세 혜택의 수혜자는 대부분 소득없이 살고있는 비 투기꾼 노인층이 대부분일 것이다. 필자도 비거주 1주택자라서 파편을 맞게 된다.

필자는 투기꾼이 아니고 보유기간이 38년, 재건축으로 이사 후 입주할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8년간 비거주하며 더 작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도 또 피해를 보게 된다. 집 한채 가진 것을 불로소득처



안 오르면 주택에 대해 세무 당국은 전보다 더 철저한 소득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럼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1998년 3억6천만 원에 산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하고 임대후 지금 29억 원에 팔면 양도세가 9,374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이 폐지되면 유예기간이 정해질 테고, 푹푹한 한 채씩만 남게 돼 그 기간에 반짝 효과로 부동산 구매물이 증가해서 집값이

취소된 게 많다. 사려는 사람은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거래마저 뜸한 편이다.

이같은 발상은 왜 나왔을까. 이 정부가 시작한 세금 정책의 숨은 의도를 이해하면 수궁이 간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 2월 발표한대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82.5%로 인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빛은 1300조 원 이상이다. 1년 전보다 121조 원이 증가한 금액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매년 빛이 그 수준으로 증가할까 우려한다. 작년의 한·미정상 회담으로 미국에 투자할 금액, 중동 전쟁으로 환율 인상, 유가 인상, 경기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여러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

결국 6·3 지방선거가 끝난 7월 말에 종합적으로 세금 문제 대책을 세울 듯하다.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다주택 양도세 인상에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손보기. 다음엔 보유세와 종부세, 상속세까지 대대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암

이대통령 “장특공 폐지 맨 집값 안정 효과”

비소득 노인층 주택 장기보유 특혜 상실 위기감

빌딩소유자 땅 투기 이익금 환수 병행돼야

만원인데 오는 7월 세제 개편 후 29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6억483만원. 6.4배로 뛴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고 이사해야 할 때 그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는 같은 수준의 집을 타지역에 구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내집을 내맘대로 자유롭게 사고 팔기가 어렵게 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일본 및 유럽 주요국의 세제를 보면 이 장특공제의 논리와 정반대다. 여러 국가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특혜가 많다.

그들은 양도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거주를 전혀 안하고 임대만 해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OECD는 2025년 발간한 양도세 보고서에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

안정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이 시각은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식이다.

양도세 인상을 피하려고 고가의 주택일수록 얼른 매물로 내보내서 일시적으로 매매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전의 반대쪽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실거주가 늘고, 결국엔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져서 전월세 보증금이 폭등하게 되고, 전세금 대출도 정책상 어려운 실정이라 설상가상 서민층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다주택 투기꾼이 아니고 실소유한 한 채를 투기로 보는 시각도 아쉽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방침이 나온 지난 2월 이후 매물이 쏟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요즘 강남 부동산 가격도 대체로 하락했고, 급하지 않은 매물은

시했다.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다. 빌딩을 소유한 사람의 양도세나, 임대수입에는 왜 세금 올린다는 말이 없을까. 주택에만 올인해서 실소유한 1주택에만 혜택을 줄여서 세수를 늘릴게 아니라, 빌딩과 땅 투기로 큰돈 버는 사람들에게도 이익금에 대해 더 큰 세율로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공평하지 않을까.

다다익선의 수입에 세금을 비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양도세가 오르든 안 오르든 주택에 대해서 세무 당국은 전보다 더 철저히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세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탈세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이향숙(본회 부회장)

삼성전자 올 매출 133조 …세계1위 눈앞

경제 포커스

영업이익 57조…분기당 이익 전년 1년치 추월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경이적 실적을 기록해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사모펀드(PEF) 관계자들도 삼성전자의 엄청난 실적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대로라면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부동의 글로벌 시총 1위인 미국의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파격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매출 133조, 영업이익 57.2조…분기당 이익이 전년 1년치 추월

삼성전자는 지난달 7일 잠정실적을 공개했다.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 비수기라고 불리는 1분기에 터진 숫자다. 작년 한해 전체 이익이 43.6조 원이었으니, 3개월 만에 1년치를 훌쩍 넘긴 셈이다. 원래 컨센서스(시장 예상치)는 40조 원이었다. 그것을 무려 17조2000억 원이나 뛰어 넘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704개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약 50조 원인데, 삼성전자 혼자서 57.2조 원을 벌어들였다.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다.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앞서는 글로벌 기업은 1위 애플, 2위 아람코, 3위 마이크로소프트 뿐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엔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체의 90% 차지…기타 부문은 미미

그렇다면 영업이익 57.2조 원은 어디서 벌어들인 걸까. 전체 영업이익 57.2조 중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반도체 메모리 부문에서만 약 53조 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TV도, 생활가전도 아니다. 메모리 부문에서의 영업이익 폭증은 메모리 가격 폭등에 기인한다.

메모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DRAM 가격은 1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90~95%가 폭등했다. 환율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4월 말 현재 원·달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제공)

환율은 달러 당 1500원 전후. 1월 초보다 50원 정도 환율이 올라 있다.

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 측은 “달러 강세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DS) 부문 중심으로 1분기 영업이익에 약 1.6조 원의 긍정적 환율 효과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증권가 컨센서스 등을 참고해 가정한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약 270조 원. 노조의 요구(15% 인상)대로라면 사측은 이중 40조500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산업계 안팎에선

생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들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를 불러올 거란 우려도 크다.

가트너·옴디아 등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DRAM 36%, 낸드 플래시 28%, 고대역폭메모리(HBM) 22%를 장악하고 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업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들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도 우려된다.

갈 길 먼 삼성전자…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타협해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은 보통 1.5~2년간 지속된다. 2026년 1분기가 사이클의 초입이라면 올해 하반기와 2027년이 진짜 폭발 구간일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엔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거시경제에 편승하는 산업, 즉 시클리컬(경기 민감) 산업이 아닌 구조적 성장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면서 최근의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

업계, 내년 엔비디아 추월 영업이익 1위 전망 관세와 중동전쟁-성과급 주장 노조관계 변수

노조 “영업이익 중 15% 내놔라!”…‘도 넘은 돈 잔치’ 요구란 비판도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앞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의 전례없는 이런 요구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돌린 SK하이닉스의 ‘결단’이 그 배경이 됐다는 것.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내년 1인당 평균 성과급이 무려 13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노조는 직원들의 SK하이닉스와의

이건 ‘도 넘은 돈 잔치’로 너무 과한 요구란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약 12만5000명)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약 3억2000만 원, 메모리 사업부 소속의 경우에는 1인당 6억2000만 원에 해당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사측은 성과급으로 모두 45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로 5조~10조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이 발

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관세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파운드리 부진 등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이번 실적에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파원 수첩 런던 ⑬

테니스의 聖地 Wimbleton, 잔디코트에 흰 유니폼 매년 6월 '꿈의 무대' 관중들 열광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윔블던은 테니스의 성지이다. 매년 6월 하순 런던 시내 중심부 트라팔가 스퀘어에서 지하철로 30분, 서남쪽 부도심 '윔블던 파크'역에 내리면 코트로 향하는 인파가 길을 메운다. 당일 티켓을 사기 위해 사흘 전부터 캠프하며 밤을 새우던 젊은이들이 이에 합세한다.

세계적인 남녀 테니스 경기는 1년 내내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 중에서 모든 선수들이 뛰어보기를 열망하는 꿈의 무대는 단연 그랜드슬램. 윔블던 대회이외에 연초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을 비롯, 프랑스 롤랑 가로스, 뉴욕의 유에스 오픈이 그것이다. 이 4군데 그랜드슬램 이외에도 ATP(프로 테니스협회)와 WTA(여성 테니스협회) 투어를 통해 남녀 경기는 세계 곳곳에서 연중 펼쳐진다.

그 많은 대회 가운데 윔블던 경기는 단연 돋보인다. 격조가 높고 품격이 남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1984년부터 4년 동안 런던특파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매년 이곳 취재에 열중했다. 테니스가 지금까지도 즐기는 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취재는 재미가 배가 되었다. 특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영국정보처(COI,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GCS로 개편)에서 발급하는 취재 패스를 목에 걸고 센터코트부터 18개 코트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TV중계실이나 선수 인터뷰실, 체력장, 라운지, 카페 등 무대 뒤의 모습도 구석구석 구경하며 잔디관리 비법, 볼 보이 훈련 등 경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는 특권을 누렸다.

당시 이곳에는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테니스의 전설들이 역사를 꾸미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코트의 악동' 존 매켄로가 활개를 쳤다. 천재적 감각에 거침없는 언행, 라켓을 집어던지며 심판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은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엄격하기로 정평 있



사흘에 걸쳐 11시간 5분 동안 계속된 최장 경기 기록 패널옆에 선 필자와 윔블던경기장 전경(오른쪽).

는 무대 위에서 야유와 웃음이 교차되었다. 여성부에서는 근육질에 완벽한 경기운영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가 연승 행진을 계속했다. 미남 미녀의 지미 코너스와 크리스 에버트는 경기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페더러의 운동화 밑창이 오렌지색이라 하여 신발을 바꿔 신도록 한 일은 유명한 일화. 컬러TV시대가 열리고 유니폼이 아무리 화려해져도 윔블던은 요지부동이다. 상업적인 광고가 전혀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다른 경기장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광고가 곳곳에, 심지어는 네트에

시간 진행된 경기. 사흘에 걸쳐 무려 11시간 5분 간 시합이 계속되었다. 2010년 존 이스너와 니콜라 마우이 간 대결. 타이브레이크 스코어는 70 대 68, 이스너의 승리였다. 이 게임 이후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 모든 그랜드슬램 최종 세트에도 10점 타이브레이크가 도입되었다. 이 '전설적인 마라톤 경기' 하나가 스포츠의 규칙을 바

150년 역사-규범이 축적된 '하나의 제도' 최연소 우승 보리스 베커경기 관람 현장 목격

1985년 17세 7개월의 보리스 베커가 혜성처럼 등장, 지금까지도 경신되지 않고 있는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을 때 나는 한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왕세자빈 미들턴 임석, 암표 천정부지
윔블던대회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특별하다. 그 첫째가 역사와 전통. 1877년에 처음 시작, 내년이면 꼭 150주년을 맞는다. 축구, 골프, 승마, 하키, 배드민턴, 탁구, 럭비, 스쿼시, 컬링, 빌리어드, 크리켓 등 수많은 스포츠가 그랬듯이 테니스 역시 영국에서 발상되어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윔블던이 특별한 것은 시간의 축적에서 비롯된 권위와 품격에 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통도 깊다. 선수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자기 이름을 새기기 위해 코트에 선다. 전 세계 유일하게 초록색 잔디코트에 흰색 드레스코드를 엄격히 요구한다. 2013년 '테니스 황제' 로저

까지 빼곡한 것과는 대비된다. 선수와 관중이 경기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을 비롯한 왕실 인사들의 관람, 관중들의 화려하지만 예의바른 복장, 절제된 환호는 분명히 품격이 다르다.

윔블던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전통과 규범이 축적된 '하나의 제도' 곧 인스티튜션(Institution)이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이런 인스티튜션이 여럿 존재한다. 로열 아스코트 경마, 왕실 가든파티, 폴로 경기, 플라워 쇼, 오페라 페스티벌 등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회적 품격과 전통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이자 전통이다. 수백 년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인스티튜션의 전형이다.

최장 경기 사흘에 걸쳐 무려 11시간 5분 마지막 스코어 70 대 68 - 규칙 변경 가져와

윔블던은 또 기록이 제조되는 곳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상 가장 오랜

꾸었다는 점에서 윔블던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쓰는 무대라 할 수 있다. 5시간 53분동안 진행된 호주 오픈 결승전(2012년)은 규칙 개정의 촉매제였다.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된 체력의 극한대결 이후 승자 노박 조코비치도, 패자 라파엘 나달도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시상식을 진행할 정도. 격렬한 테니스, 그것도 단식경기를 6시간 동안 벌였다는 것이 상상이 되는가. 여성선수의 참여도 허용, 맨처음 성평등을 구현하고 전 세계 셀럽 74명을 초청하여 로열박스에 모시는 것도 여기가 유일하다.

금년도(2026년)경기는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릴 예정. 입장권은 작년 9월로 이미 매진, 배정이 끝났다. 그래서 암표 값이 하늘을 찌른다. 경기 사흘 전부터 야영을 하며 당일 500장 한도의 입장권 구입을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 민
새 마을
기 업

성과 경쟁 극대화로 '한강의 기적' 성취

대한연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⑩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기공식 6년만인 1976년 5월 31일 포철 제2고로 화입식을 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3. 박정희 경제 기적은 법 앞의 기회 평등과 경제적 차별화의 산물

이제 정치(이념)와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법 앞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시장의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수용하는 정치는 민주정치든 비민주정치든 발전친화적이지만, 역으로 결과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여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무력화하는 정치는 민주든 비민주든 발전역행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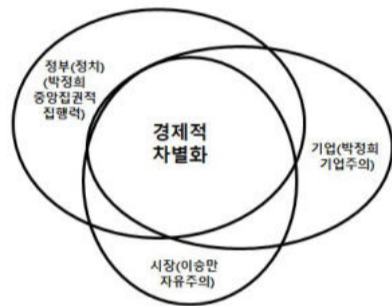
발전친화적 국가는 국가의 리더십과 정부와 정치가 경제적 차별화를 수용하는 정책과 제도를 인정하고 지키는 나라이며 이에 반하는 나라는 발전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소위 비민주적이었던 박정희 시대의 성공은 법 앞의 기회 평등과 경제적 차별화로 경제적 성과를 우대한 결과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독재 하의 경제의 성공 또한 박정희를 모방한 결과이다. 오늘날 선진 민주국가의 경제 정치는 결과나 기회 평등을 추구하여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약화시켜 성과보다 분배를 중시한 결과이며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어려움 또한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 잉태한 경제학 혁명

1. 시장, 기업, 정부의 삼위일체 경제 발전이론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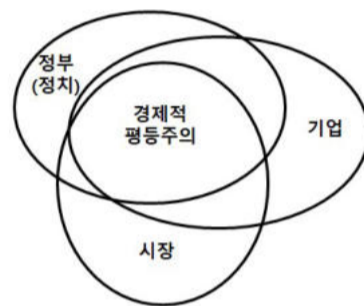
이상 논의한 박정희의 시장관, 자본주의 기업관 그리고 정부(정치)관을 종합하면 경제변영의 종합적인 전략으로, 박정희의 경제철학을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경제발전 이론회화할 수 있다.

<그림 1>은 박정희 경제사상을 기존의 "시장 대 정부"라는 경제발전 역할 논쟁"의 핵심인 시장 중심의 주류 경제학과 정부 중심의 경제학에다 새롭게 기업경제론을 추가한 모형으로 시장, 기업, 정부 3주체가 성과를 중시하는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정책 원리를 적극 수용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삼위 일체 경제 발전이론: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차별화 정치·경제체제

필자는 이 이론을 삼위일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라 명명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류 시장중심 경제학과 정부중심 경제학은 현실 경제발전 현



<그림 2> 삼위일체 경제 발전이론: 한국의 민주화 이후 평등주의 정치·경제체제.

를 알 수 있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 시장론자들이나 산업정책 등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각각 박정희 시대의 3분의1씩만을 보는 셈이며, 민

업의 성과경쟁 동기를 극대화해 한강의 기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승만시대와 박정희시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 연재에서 좀더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민주정부가 경제적 평등주의를 정책기조로 내걸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약화시키면 경제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그림 1>에 대비해서 보여준다. 실제 사례로서 한국의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경제 평등을 정책기조로 내건 평등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체제가 이에 해당된다. 후술할 기회가 있겠지만 박

한국발 경제학 혁명, 전통 경제학은 몰이해

상의 각각 3분의1 정도씩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면 박정희의 사상은 새로운 기업경제 사상으로 나머지 3분의1을 채우고 여기에 기존 경제학이 인지하지 못한 '경제적 차별화'라는 핵심 정책원리로 3주체를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삼위일체 경제발전 이론이 성립되는 셈이다. 이는 기존 주류경제학 이론들이나 좌파 경제학 이론들에 대한 혁명적 도전이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전통경제학과 정치경제학 이론에 한국발 경제학 혁명이 일어났는 데도 우리도, 세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벨상 수상자(James Robinson, 24년 공동수상자)까지도 박정희의 성공은 기존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이유와 국내외 경제학자, 정치·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박정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 사상으로 찬반 논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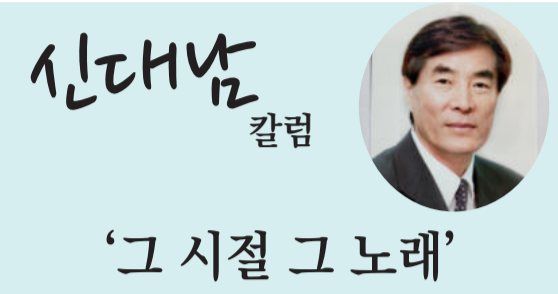
주주의나 권위주의냐를 가지고 따지는 정치·경제학자들도 정치의 역할에 치중하여 역시 3분의1 정도인 정부만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으로 모두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까맣게 눈감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박정희 사상에 있어서 시장과 그리고 정부와 정치의 핵심 기능인 경제적 차별화원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의 내용을 좀더 부연 설명하면 박정희 시대는 우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시장 경제 체제로 건국한 이후 이 체제 위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 동원과 배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행력을 보강하고, 민간 기업을 발전계획 실행의 주체로 앞세워, 자원을 철저하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제도에 부합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 새마을, 기

정희 경제학은 5공화국에서 여러 장애를 만났다. 그러나 크게 보면 박정희 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 이후에는 박정희 경제학이 더불어 잘사는 동반성장 기적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박정희에 반대로 하는 것이 모두 평등한 경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였다. 소위 경제를 평등하게 민주화한다고 반대 기업, 친중소기업 정책을 내걸었지만, 박정희 기업경제 패러다임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낸 세계적으로 희귀한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성공사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박정희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원리가 진정한 경제정의의 바탕으로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비법임을 모르고, 성과를 경시하는 경제 평등주의 체제는 대세가 되었다. 앞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지속된 성장둔화와 분배악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을 노래하는 시인이다”

한경애 ‘옛시인의 노래’ 1980년대 스산한 사회 위로



‘그 시절 그 노래’

<14>

“난세에 영웅 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사는 난세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고단한 시대의 고비마다 대중가요가 대중을 위로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백년설은 나라 잃은 일제 강점기 35년(1910년 8월 29일~1945년 8월 15일)을 ‘번지 없는 주막’의 ‘나 그네 설움’으로 노래하고 경시청이 있던 서울의 광화문 거리를 “낮익은 거리다 마는 이국보다 차위라...”라고 3절 가사를 직접 쓰고 노래했다.

광복이 되고 이어 터진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쟁을 신세영은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라고 ‘전선야곡’을 애달프게 노래했다.

또 현인은 부산의 피란 시절을 “금순아 어데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1·4 이후 나홀로 왔다”고 ‘굳세어라 금순아’를 목 놓아 불렀다.

남인수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피란살이를 끝내고 상경하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고 했다.

불우한 역사는 또 자유 없는 자유당으로 이어지고 손인호는 “목이 떤 이별가를 불러야 웁느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웁느냐”고 ‘비 내리는 호남선’을 노래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18년 혁명정부의 끝이 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신군부의 12·12쿠데타로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정권이 시작됐다.

상처지고 아픈 근대사가 이어지던 1980년 11월 17일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가 나왔다. “마른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내가 앞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게 없어요”.

KBS라디오 방송작가 이경미가 쓴 시적인 가사와 이현섭의 서정적인 멜로디, 나지막한 한경애의 보컬이 스산했던 대중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노래는 또 이어진다.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내가 앞새라 해도/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뚜



‘옛 시인의 노래’로 힘겨운 역사의 한 시대를 위로한 가수 한경애.

루루 귤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이경미와 이현섭은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첫 곡으로 76년에 만나 다음해 결혼을 하고 기념곡으로 ‘옛시인의 노래’를 냈다. 그리고 1981년 KBS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잔잔한 보컬로 공감얻어 한국 근대사 고비마다 대중가요가 국민정서 대변 5월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孝 감사의 뜻 새겨야

가요대상, 1982년 가톨릭 가요대상의 작사상을 받았다. 1년 뒤인 1981년 12월 이틀 트리오는 또 하나의 불후의 명곡 ‘타인의 계절’을 냈다. “그대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도 깊은 까닭에...” 우리가 무심히 듣고 부르는 대중가요는 이렇게 대중과 함께 나라를 염려하고 분노하고 위로하는 “대중의 대중을 위한 대중의 노래”로 역사를 써왔다.

한경애는 흥익대와 대학원을 나온 섬유예술학 석사다. 1978년 동아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3시의 다이얼’ 진행자로 방송에 입문했다. 1979년 ‘미운 사람’ ‘잊혀 지지 않아요’로 가수 데뷔를 하고 1980년 5월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아시나요’ 유치환의 ‘행복’ 등의 시 낭송 앨범 1집을 내고 반응이 좋아 그해 10월 2집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앨범을 냈다.

그리고 ‘옛시인의 노래’로 한 시대의 가수가 되고 1981년 제1회 가톨릭 가요대상의 가수상, 1983년 MBC 방송연기상의 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각 방송

사의 설문조사에서 일반 대중은 물론 중·고·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필자는 한경애를 가수가 되기 전 여고 시절에 우연히 만났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 교복을 입은 한 여고생이 책가방을 들고 왔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별로 말이 없는 참한 인상으로 기억된다. 시간이 흐르고 스타가 됐던 어느 날인가 신문사 편집국에 문득 들렸던 것 같다. 김벌리 커버거의 시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반갑게 옛이야기라도 했거나 취재라도 했어야 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덤덤히 스쳤던 것 같다.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친 후에야 후회하는 것이 필자의 성격이다.

벌써 5월이다. 의미없이 지내던 5월을 2년 전 대한언론인회의 문화탐방에서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에 있는 한다리 마을 ‘사모정淸母亭 공원’의 ‘어머니 길’을 다녀와서 ‘가정의 달 5월’의 의미와 ‘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사모정 공원’은 ‘효’의 본고장을 표상하는 신사임당과 이율곡의 생가 오죽헌 옆 1.000여평에 조성된 ‘효’의 공원이다. ‘사모정’에서 오죽헌까지 1.5km의 길을 내고 ‘어머니 길’이라 부른다. 이 길은 필자의 한국일보 대 선배이신 ‘백교

효문화선양회’ 권혁승 이사장님의 어린시절,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장터에 나가 고무신을 사주시던 오솔길을 사모정과 함께 사비로 만들어 강원도에 헌납했다는 해설을 들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5월이면 더욱 생각나는 선배이시다.

5월 가정의 달은 1973년 보건복지부가 가족사랑과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과 주변에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달로 지정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있다.

행복도 존경도 사랑도 멀리 있지 않다. 옆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이웃부터 사랑하고 챙겨야 한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 감나무에 앉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모두는 지나온 세월의 옛시인이고 오늘도 인생이라는 시를 쓰고 있는 멋진 시인이다.☞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

올해의 스포츠주간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 소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자발적 참여 유도

운동은 거창한 결심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한 바퀴 걷고 가볍게 뛰며 숨이 차오름을 느끼는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되고 이게 모여서 건강한 습관이 된다. 2026년 스포츠주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스포츠 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시행되는 스포츠주간은 국민의 스포츠참여를 확산하고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범국민 참여 주간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64회 스포츠주간(4.27~5.3)을 맞아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기치 아래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민체력100 튼튼머니 이벤트와 튼튼머니 온라인 마라톤, SNS 스포츠 활동 인증 챌린지 등은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체육공단, ‘땀송송 운동해봄제’ 행사 열기

지난 4월 26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대국민 참여형 스포츠 축제 ‘땀송송 운동해봄제’는 스포츠주간 시작의 열기를 생생히 느끼게 했다. 봄날의 힘찬 기운을 받으며 달리는 청년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 여유롭게 몸을 푸는 어르신들까지 세대와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하형주 체육공단이사장이 국민스포츠축제 ‘땀송송’에서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에서 ‘움직임’으로 연결됐다. 뉴 스포츠, VR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스포츠가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활동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줬다.

이날 ‘땀송송 운동해봄제’행사를 주관한 하형주(1984년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공단 이사장은 스포츠주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선수 시절에는 기록과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느끼는 변화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말처럼, 스포츠는 누구나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 이사장은 이어 “스포츠는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땀송송’에 참석한 사람들이 달리기를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직접 경험할 때 비로소 삶의 일부가 된다”며 스포츠주간은 그 변화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실버 건강체조 등 참여형 프로그램

특히, 이번 스포츠주간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행사가 의미를 더했다. ‘땀송송 운동해봄제’에서 청년층을 위한 러닝 프로그램부터 중장년층의 건강 토크쇼, 어르신을 위한 실버 건강체조, 휠체어 농구 등 장애인스포츠 체험 행사까지 이어지는 구성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스포츠가 나눔으로 이어진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당신의 스포츠를 보여주세요(#당스보)’ 캠페인은 국민이 SNS에 스포츠 활동을 공유하면 게시물 1건당 1천 원이 적립돼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다.

하 이사장은 “일상의 작은 운동이 기부로 이어지고, 다시 누군가의 스포츠 참여기회로 확장되는 과정은 스포츠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며 “스포츠는 경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는 ‘스포츠참여 잇기 캠페인’ 동참을 통해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가장 가까운 실천”이라며 “스포츠주간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겁게 스포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국 배드민턴, 아시아 선수권 ‘대풍가’ 22년만에 중국꺾고 ‘金3’ 종합 우승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구가한 ‘대풍가’가 중국 하늘에 멀리 메아리졌다. 제2의 황금기가 도래했다는 포효가 아시아 배드민턴 천하를 진동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202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석권했다. 중국 Ningbo(寧波)에서 벌어진 이번 대회(4월 7~12일)에서, ‘태극 군단’은 종합우승의 개가를 올렸다. 풍성한 결실(금 3-은 1-동 1개)을 올리며 ‘안방 잔치’를 벌였던 중국(금 2, 은 2, 동 2개)을 물리치고 22년 만에 잃었던 천하를 되찾았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4·삼성생명)이 여자 단식에서, ‘세계 최고 듀오’ 김원호(27·삼성생명)-서승재(29·삼성생명)가 남자 복식에서, 각각 정상에 밟으며 최강자의 풍모를 다시금 뽐냈다. 또 ‘다크호스’로 꼽혔

던 김재현(24·요넥스)-장하정(26·인천국제공항)이 혼합 복식에서 ‘깜짝 우승’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용솟음치는 상승세를 거들었다.

이 대회를 지배해 오던 중국에 통쾌한 일격을 가한 쾌거였다. 1962년 출범해 올해까지 43회 치러진 이 대회 통산 메달 획득에서, 중국은 압도적 선두를 달려왔다. 총 276개(금 83, 은 79, 동 114개)의 메달을 휩쓸어갔다.

아울러 역대 메달 획득(한국 기준) 순위에서도 뜻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54년의 연륜이 쌓인 이 대회에서 한국은 1991년 쿠알라룸푸르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3개의 금메달(남자 복식 박주봉-김문수, 여자 복식 정소영-황혜영, 혼합 복식 박주봉-정명희)을 비롯해 모두 7개의 메

대한민국 역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성적 상위 5대 무대

순위	대회		성적	
	년	개최지	금-은-동	우승자
1	1991	쿠알라룸푸르	3-3-1	박주봉-김문수(남자 복식), 정소영-황혜영(여자 복식), 박주봉-정명희(혼합 복식)
2	2026	닝보(寧波)	3-1-1	안세영(여자 단식), 김원호-서승재(남자 복식), 김재현-장하정(혼합 복식)
3	2004	쿠알라룸푸르	3-0-1	전재연(여자 단식), 이효정-이경원(여자 복식), 김동문-라경민(혼합 복식)
4	1983	콜카타	2-3-2	유상희(여자 단식), 박주봉-김원호(혼합 복식)
5	2003	자카르타	2-1-1	이동수-유용성(남자 복식), 라경민-이경원(여자 복식)
	2013	타이베이		이용대-고성현(남자 복식), 고성현-김하나(혼합 복식)

달(은 3, 동 1개)을 거둬들여 역대 최고의 대풍을 이뤘었다. 물론 종합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그때 못지않은 풍성한 결실을 올렸다. (표 참조)

개인 선수별로도 의미가 깊었던 이번 대회였다. 무엇보다도 마침내 대망의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에게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뒤쫓는 세계 랭킹 2위 왕즈이(王祉怡·26·중국)를 일축(2-1)하고 정상에 올라섬으로

써, 화룡점정(畫龍點睛)의 마지막 한 점을 찍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희원(希願)을 이뤘다.

남자 복식 세계 1위조인 김원호-서승재 짝꿍도 정상에 굳게 쌓은 철옹성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2026시즌에만도, 슈퍼 1,000대회인 말레이시아 오픈(1월)-전영 오픈(3월)에 이은 세 번째 등정이다. ☐

최규섭(대한체육연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살며 생각하며

나를 담금질시킨 6·25피란살이

다섯살때 걸어 어머니 고향 오산에 정착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나이를 많이 먹다보니 갑자기 누가 “어제 점심 식사 메뉴가 뭐였냐”고 물으면 막상 답이 막히는 때가 있다. 그러다 대답을 포기하고 10분 쯤 지나면 뜬금없이 답이 떠오른다.

6월 25일이 다가오자 76년 전 그 전쟁 때 피란가고 난리친 생각이 또렷이 떠오른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빨갱이들이 갑자기 새벽에 쳐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당시 나는 다섯 살. 쳐들어온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빨갱이는 빨간 피부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으로 알았다.

이틀 후 새벽 누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전쟁터 아군 부대에서 잡일을 돕는 일에 동원됐다고 들려왔다.

그제서야 어머니와 나, 두 살 난 여동생은 피란 갈 준비를 했다. 마당 화단의 화초를 다 뽑고 그 자리에 빈 항아리를 묻었다. 거기에 쌀을 부었다. 그 위로는 위장용 조개탄을 깔았다. 조개탄은 석탄 가루를 반죽해서 한 줍씩 떼어내 말린 건데 나무보다 화력이 오래 갔다.

마침내 시작한 피란길. 고향의 시작. 쌀 한 되 정도와 지폐 몇 장, 옷 조금 담은 보따리 하나는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또 다른 보따리는 오른 손에 들고, 왼손에는 내 고사리 손을 잡았다. 등에는 두 살 여동생을 업었다. 27세 어머니의 몸은 두 딸과 짐으로 완전히 덮이고 눌렸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른 아침 식사 후 지금의 고려대학교 앞의 우리 집에서 한강대교 앞까지 걷고 또 걸었다. 점심도 굶고 징징대며 도착했는데 오후였다. 다리는 이미 북괴군들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에 의해 폭파돼 있었다. 다리를 건널 유일한 수단인 나룻배 하나를 타려고 피란민들이 한강 둑 주변을 메우고 있었다.

우리도 거기 서서 다른 사람들처럼 “뱃사공, 뱃사공”하고 목이 터져라



이고 지고 잡고, 고달픈 6·25 피란길. 나도 악착같이 걷고 초근목피로 연명했지만 그 과정은 나를 강하게 만든 담금질이었다.

비행기가 뜨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하 방공호 속으로 숨으라는 의미로 “벤지(비행기). 벤지”하며 손짓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적개심은 좀 누그러졌지만 늘 공포에 떨었다.

이웃집 16세 언니는 혹 중공군들에게 나쁜 짓을 당할까봐 부모들이 그 언니 머리에 쪽을 찌고, 헌 수건을 씌우고, 낡은 무명 한복을 입혀 촌 아줌마로 변장시켰다. 그 와중에 유일한 낙은 또래 친구들과 산에서 오디, 산딸기, 버찌 등 이름도 들은 적 없는 열매와 칩, 냉이, 달래, 썬바귀 등 산나물을 캐는 거였다. 그때 그 친구

1·4후퇴때 또 다시 용인 산골로 2차 피란 이웃 중공군 낙오병 등쌀...주민들 공포에 떨어

불렀다. 서너 시간 쯤 지나서야 겨우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 후 며칠을 걷고 노숙하며 오산 미군비행장 후문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어머니의 고향인데도 아는 이가 전혀 없었다. 어머니는 거기서 미 공군 조종사와 한국인 종업원을 상대로 땅바다에 돛자리를 깔고 밥장사를 했다.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결막염에 걸렸다. 약국이나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1년 이상 오직 소금물로 눈을 자주 씻어야 했다. 눈이 충혈돼 따갑고 아팠다.

이후 미국과 유엔 16개국의 도움으로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됐다. 우리는 또 한없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지만 나는 다리가 아파 울면서 걸었다. 복귀의 안도감도 잠시, 중공군과 북괴군이 합세

해 쳐내려오고 우리는 다시 피란길로 내몰렸다. 이번에는 용인의 산골마을. 방 하나를 다른 집과 공동으로 얻었다, 여기 생활은 그저 ‘지옥’. 작은 방구석에 두 가족의 보따리, 밤엔 어른들은 앉아서 새우잠을 자고 애들은 쪼그리고 누워서 잤다.

밤 때면 우리 식구 그릇에는 보리밥 알갱이조차도 낚시를 해야 걸릴 만큼 드물었다. 산나물에 소금물이 대부분인 죽에 물김치로 연명해야 했다. 다른 집엔 쌀이 많아 그걸 보며 기가 죽었다. 설상가상, 옆집에 우람한 체격에 두꺼운 솜을 넣은 군복과 모자를 쓴 중공군 5명이 방 하나를 탈취해서 사는데 밤낮으로 동네에서 설치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왜 거기 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저 탈영병이거나 낙오병이라 추측했다.

들, 춘복이, 정아가 그림다. 남북한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그 중공군들은 살던 집의 소한마리와 큰 가마솥, 쌀을 빼앗아서 밥을 지어 소등에 싣고 떠났다. 우리도 집에 돌아왔다. 독안의 쌀은 조개탄 물이 검게 스며들어서 다 버렸다. 아버지도 얼마 후 돌아오셨다. 작은 기업을 시작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여느 부모처럼 남녀 차별의식도 강했던 부모님으로 인해 그 이후로도 남 못지않게 힘든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자아의식이 강했고, 그 의식의 끄트머리에서나마 자존감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나를 키운 것은 한 때 잠시나마 나를 ‘담금질’했던 그때, 그 기억이 아닌가 한다.

낮엔 벚꽃터널, 밤엔 빛의 LED쇼

‘후지산 조망 명소’ 日 시즈오카 3박4일 자유여행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④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필자도 4월초 계획했던 북반구 세계일주 크루즈를 1년 미루게 되었다.

‘꿍 대신 닭’으로 동네 자치센터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수강생들과 함께 3월 18일부터 3박4일 동안 일본 시즈오카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그동안 배운 일본어 실습을 겸한 문자그대로 체험여행이었다.

시즈오카는 후지산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도쿄 근처의 소도시로 공항 이름마저 후지산 공항이다. 항공권은 같은 비행기편을 각자 예약했다. 편의상 식사만큼은 일정 회비를 거둬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3월 18일 오후 제주항공 편으로 인천공항 출발. 70세 이상은 전용출국통로(패스트 트랙)를 통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비지트 저팬’웹을 통해 사전에 세관신고를 하니 공항을 나가는데도 30분이 채 안 걸렸다. 한 시간에 한 대 꼴로 있는 공항버스를 타고 시즈오카 시내로 진입. 티켓 예매는 따로 없고 줄을 서있다가 순서대로 승차. 탈 때 입차권을 받고 내릴때 구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본 교통카드가 있으면 태그만 하면 된다. 시즈오카역 근처의 오래 인호텔에 투숙.

3월 19일 새벽에 호텔 사우나에서 온천욕을 한 후 뷔페식으로 아침식사. 10여분 걸어 역에 도착, 누마즈행 기차에 탑승. 한 시간가량 달린 후 오전 10시30분께 누마즈역.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항구로. 누마즈항은 일본에서 가장 깊은 스루가만에 있는 항구로 신선한 해산물과 어시장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센본하마 공원에서 소나무 산책로를 거쳐 전망대에 올라 멀리 후지산을 조망. 어시장을 둘러본 후 식당에 들러 해물뎡밥으로 점심.

심해 수족관에 들러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구경하고 역으로 돌아와 다시 아타미행 기차 탑승.

아타미는 이즈반도 동쪽에 있는 도

〈3박4일 여행경비〉

공항버스(죽전~공항)	22,000원
항공료(인천~시즈오카 왕복)	235,000원
계	257,000원
호텔비 올레인	9,990엔
선 리조피아	7,210엔
무음의 숲	1,545엔
교통비 버스	2,800엔
기차	8,200엔
식사비+입장료	20,000엔
기타	3,000엔
계	62,745엔

쿄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 온천 도시. 신칸센을 타면 도쿄에서 불과 40~50분밖에 안 걸려 에도시대부터 번성한 곳이라고 한다.

아타미역에 내려 구글맵을 보고 호텔을 찾아 20여분 걷다.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위에 자리한 호텔 선 리조피아에 투숙하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온천욕을 즐긴 후 저녁식사하러 시내 중심가를 찾아가다.

장소는 허름했지만 음식값은 비싸고 맛은 보통.

3월 20일 새벽에 일어나 해안 산책. 새벽부터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들이 의외로 많다.

호텔 셔틀버스로 역으로 이동. 에키벤으로 아침식사. 값싸고 맛있다. 다시 각자 기차표를 구입해 25분 만에 이토역으로 이동. 역 앞 렌트카 회사에서 8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다. 맨 먼저 오무로산에 가다. 둥근 모양의 분화구가 있는 오펜으로 규모가 제법 크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 30여분 걸려 한 바퀴 돌다. 360도 파노라마로 이토 시가를 내려다 보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공원에 들러 잔디밭 산책. 각양각색의 벚꽃이 겨울을 제외하고 거의 매 계절 번갈아 핀다고 한다. 용암이 굳어 형성된 해안 절벽의 절경이 아름다운 조가사키 해변에 들러 가도와키 현수교도 건너 보다. 해지기를 기다려 야간 이루미네 이션으로 유명한 이즈 그란팔 공원으로 이동. 엄청난 규모와 빛의 조화에



기차안에서 바라본 후지산 전경.



오무로산의 조형물.

놀라다.

밤늦게 전통 료칸 밀집지역에 위치한 료칸 ‘무음의 숲’에 들어가다. 침대는 없고 100여년 낡은 건물에 다다미방이 특색. 온천도 노천탕이 달려 있어 운치가 있다.

3월 21일. 하천을 따라 해변까지 한 시간여 산책. 조용한 시골마을. 간간이 중년의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렌트카를 반납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시즈오카시로 향하다. 1시간 30분만에 시즈오카역 도착. 메밀소바로 점심식사 후 간단한 쇼핑. 공항버스로 후지산 국제공항으로. 3박4일의 여정을 마무리. ☐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본회 회우〉



오무로산에서 조형물을 배경으로 선 필자.

회우 광장

“사랑이 있으면 봄날은 따뜻하리라”

시인들이 뽑은 대중가요 노랫말 ‘봄날은 간다’ 생각하며



유자효
본회 이사
전 한국시인협회장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짚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양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알뜰한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봄날은 간다」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로 녹음되어 유니버설 레코드의 첫 번째 작품으로 발표되었다. 가수 백설희의 실질적인 데뷔곡으로, 녹음 시간이 맞지 않아 초판에는 1절과 3절만 수록됐다고 한다. 백설희가 다시 녹음한 재판에 2절이 수록되었고, 이후 다른 가수들의 녹음에도 1,2,3절이 모두 수록되었다. 시기별로 당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새로운 해석의 리메이크 작을 발표해왔고, 2001년에는 제목을 빌린 영화가 개봉되었다. 2004년에는 계간 ‘시인세계’에서 현역시인 1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 노랫말’을 물어보았는데, 이 노래가 1위로 선정되었다.

김남조 시인은 노래 듣기를 좋아하셨다. 후배 시인들과 만나면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청하곤 했다. 그러나 후배들의 성화에도 자신이 노래를 하지는 않았다. 누가 「봄날은 간다」를 부르면 꼭 3절까지 부르게 했다.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봄날은 간다’의 백설희 앨범.



사랑을 잃은 최근 세태에 마음 씹쓸

우리에게 봄날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언제였는가?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을 가슴 설레며 오르던 그 시절.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부둥켜안고 오르고 오르던 그 시절, 비록 배고팠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비록 가난했어도 풍요로운 꿈은 있었던, 그 시절이 그래도 봄날이었나?

얼마나 잘 키운 나라인가! 얼마나 잘 가꾼 나라인가! 해외에 나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서면 선진국에 왔다는 실감이 난다. 서울로 들어오면 깨끗한 대도시가 여행객들을 맞는다. 서울처럼 풍요롭고 안전한 수도가 또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위생적인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돼 있는 나라. 이 나라가 6·25 직후 서양 언론인이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던 바로 그 나라다. 이런 나라를 반세기 만에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나?

대우 신화의 숨은 주역 윤영석 씨는 최근 펴낸 회고록 ‘기적을 만들던 순간들 역시 사람이었다’에서 “그 당시 우리 여성 근로자들은 마치 아마존 전사처럼, 독일 병정처럼 억척스럽게 일하며 한국 봉제산업의 전설을 써내려갔다”고 썼다. “공장 가득 울려 퍼지던 1만 대 재봉틀의 경쾌한 기계음은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젊음의 교향곡이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헌신한 나라가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국방력, 노벨상을 받은 한국소설,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BTS의 K팝은 세계에 우뚝하건만 뻗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는, 두려움은 무슨 까닭인가? 사랑을 잃은 시대, 정의가 흔들리는 불온한 기운. 왜 이리 스산한가? 가진 자도 잃은 자도 허기에 차 있는 이 봄은 왜 이리 춥게 느껴지는가?

차디찬 인천 앞바다로 뛰어든 보수 논객의 자결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족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그는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던가?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이 그렇게 절망적이었던가? 홀로 차를 몰고 다리 한가운데 내려 투신한 언론인.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 이르러 그는 대자연의 품으로 회귀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서 정녕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안하다.

느릿느릿 오던 봄날이 이제는 쫓기듯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 이제라도 어딘가에서 홀로 떨며 울고 있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자. 이제는 고속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해나가야 한다.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신의 고양(高揚)이다. 인간 정신의 고귀함이다. 포용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다시 오는 봄날은 따뜻하리라.☞

핵가족 사회 ‘孝문화’ 사라진다

■ 世窓에 비친 세태 부모부양 자식 몫 옛말...5명 중 1명만 동의



이규섭
본지 편집위원·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은빛 머리술이 닳은 두 사람. 99세 어머니(라정임 여사)와 63세 아들 혁성 씨다. 아들은 3년 전 30여 년간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누려야 할 여유 대신 어머니를 보살피는 삶을 택했다.

눈 뜨자마자 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챙긴다. 주간보호센터에 보낸 뒤 한숨 돌린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았듯, 이제는 아들이 지극 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본다.

어머니는 15년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4기. 어머니는 한국전력에 다니며 일본어 번역 일을 할 만큼 누구보다 총명 했었다니 세월이 무상하다.

지난 3월 30일부터 5일간 KBS1-TV서 방송된 ‘인간극장’ ‘백발모자전’의 현대판 효도이야기다. 효가 사라지는 시대에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마지막 세대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은퇴한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기 전까지는 아내 영화(61) 씨가 치매 시어머니를 10여 년간 보살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시절, 24시간 꼼짝없이 매여 시어머니를 돌보다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 그녀에게 위로가 된 것은 딸과 외손녀. 한 집에 4대가 살면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부양 반대 48%, 찬성의 두 배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져 간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만이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모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백발이 닳은 모자(母子). 99세 치매 어머니(왼쪽)를 63세 아들이 돌보고 있다. KBS1-TV ‘인간극장’ ‘백발모자전’ 캡처.

생이 아닌,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관계로 진화하는 추세는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대에 맞는 효의 확산을 위해 2008년 ‘효행 장려 지원법’을 제정했다.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세워 각급 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제는 거의 사문화됐다.

메신저로 일상 공유 ‘리모트 효’

시대의 변화와 함께 효의 개념과 가치도 변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의 효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수평적 사랑’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날 부모세대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원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배려이자, 독립적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바람 탓이다.

1인가구 시대...경제적 부담·가치관 변화 “부양과 돌봄을 국가가 나눠서 짊어줘야”

변화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2013년 조사부터 찬반 비율이 역전 된 후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효’에 대한 인식이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각자의 삶 존중 가치관 이동

과거의 효는 대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모를 모시는 게 보편적

이었다.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 시대로 진입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일상적인 봉양 자체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과 각박해진 현실도 한몫했다. 자녀 세대가 본인들의 생계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기도 벅찬데 부모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 부모에 대한 절대적 헌신보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확산됐다. 2017년 좌파 진영은 인성진흥교육법으로 규정된 인성 8개 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가운데 ‘효’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효는 자식이 부모를 일방적으로 공경해야하니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일방적인 희

새로운 효의 형태로 떠오른 것이 ‘리모트 효(Remote Hyo)’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메신저를 통해 일상을 공유한다. 통화로 안부를 묻고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한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도 ‘리모트 효’의 광의적 개념이다.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얻는다.

전문가들은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져야 한다고 말한다.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와 자원배분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순신, 부패 관료들의 시기 모함에 곤욕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秘史 ③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3. 이순신의 청렴(淸廉)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세계 180개국 중 31위다. 고위공직자가 출세도하고 돈까지 버는 건 도둑정치(Kleptocracy)에 해당한다. 최근 사례로 볼 때 ‘탐욕의 끝판왕’ 이해훈 전 의원,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과 김영 전 서울시의원, ‘13개 비리 혐의’ 김병기 의원,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현지 누나 파문’ 김남국 전 의원 등등.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돈까지 빼앗아 더욱 부자가 되는 마태복음 효과(Matthew's effect)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막스 베버가 말한 천민자본주의(Palia-kapitalismus)다.

공직생활 22년동안 이순신(李舜臣·1545~1598)의 청렴은 어떠했을까? 견리사의(見利思義)!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먼저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에 방점이 찍혀있다.

장부출세(丈夫出世) 세상에 장부로 태어나
용즉효사이충(用則效死以忠) 나라에 쓰이면 충성을 다할 것이며
불용즉경야족의(不用則耕野足矣) 쓰이지 않는다면 농사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약취미권귀(若取媚權貴) 권세와 부귀에 아첨하여
이절일시지영(以竊一時之榮) 이를 도둑질하여 일시적으로 영화 누리려는 것은 오심치지(吾甚恥之)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1576년(선조9년) 32세때 무과에 급제한 ‘청년 이순신’은 함경도 동구비보 말단 권관(종9품)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출사표에 남겼다.

정유재란 말 1598년 10월 순천 예교성(曳橋城)에 주둔해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협공하기 위해서 명나라 유정(劉綎) 제독과 바다의 진린(陳璘) 수군 제독은 수륙연합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고니시의 금은보화 뇌물을 받은 유정은 공성전에서 소극적이었다. 진린도 재화를 받고는 미적거렸다. 고니시는 8월 18일 도



고흥 발포 만호성 답사에 나선 필자.



‘뜰의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 고흥 발포면 도화리 청렴공원 표지석.

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갑자기 사망하자 철군하기 위해서 애가 타들어 가는 상황이었다.

진린은 “퇴각하는 적장의 퇴로를 열어주면 어떻겠소”라며 휘하 이순신 장군에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편범불반(片帆不返)! 이었다. 즉 “단한 척의 배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였다. 그러자 고니시는 이순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조총과 칼 등을 뇌물로 보냈다.

“나는 임진년 이후 적을 수없이 죽이고 노획한 총과 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 무엇 하겠느냐”고 하자 고니시가 보낸 사자(使者)

로 근무하고 있을 때 서익이 군기 경차관(국방부 검열단장)으로 발포 진영을 찾았다. 군기보수불량! 이란 무고(誣告)로 이순신은 파직되었다. 3년 전 이순신에게 인사청탁을 거절당한 분풀이를 한 셈이었다. 또 전라좌수사 성박(成鑄)이 발포 객사 뜰의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거문고를 만들겠다고 사람을 보냈다. “이것은 관가의 물건”이라며 직속상관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 ‘괘씸죄’는 근무평점을 매기는 후 임 수사에게까지 인계됐고 나중에 또 화를 당했다.

1579년 훈련원 봉사(종8품) 때 병조판서 김귀영이 자기의 서녀(庶女)

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같은 성씨여서 만날 수는 있지만 공직의 인사권을 가진 이조판서를 만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순신(1545~1598)은 율곡 이이(1536~1584)와 덕수 이씨 19촌 숙질(叔姪)간으로 나이가 어린 이순신이 아저씨뻘이었다. 당시 벼슬자리를 차지하려 분주히 뛰어다니던 분경(奔競)이란 염관운동이 난무했던 때임을 감안하면 그의 처신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경국대전에도 사불삼거(四不三拒)가 명시되었지만 유명무실했다. 4불

퇴각전 왜장 고니시 뇌물공세 단숨에 거절 뇌물받은 명나라 유정·진린 회유책 일축

는 머쓱해져서 돌아갔다.

선공후사의 초극(超克) 정신으로 무장된 강직한 이순신은 뇌물을 포말 풍등(泡沫風燈), 물거품과 바람 앞의 등잔같이 여겼다.

매사 원리원칙을 강조했던 이순신 장군의 일생은 파란만장,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관행’이란 명목으로 부패를 스스로 없애지 못하는 수많은 부패 관료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았다.

1579년 훈련원 봉사(종8품) 때 병조정랑(정5품)인 서익(徐益)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차례를 뛰어넘어 참군(參軍 정7품)으로 올리려하자 이순신은 주무관으로서 허락하지 않았다. 병조정랑은 병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실력자였지만 이순신은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 1582년 1월 이순신이 흥양(고흥)의 발포만호(종4품)

를 첩으로 주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갓 벼슬길에 올랐는데 어찌 권세가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느냐”며 거절했다. 다음은 1582년 발포만호에서 파직되고 다시 훈련원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의 일화다. 정승 유전(柳璣)은 이순신에게 좋은 화살통(箭筒)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칫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당시 서익의 무고로 파직당한 뒤 훈련원 말단으로 복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승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순신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릴 적 한성 건천동(마른내 골)에서 함께 자랐던 ‘동네 형’ 류성룡 대감이 이순신에게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이조판서 율곡 이이(李瑀)가 같은 성씨(덕수 이씨)인 자네를 한번 만나보

(不)은 부업, 땅, 집, 특산물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3거(拒)는 청탁금지, 답례거절, 경조사 부조리 금지 등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지방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는 끝이 없었다. 다음은 1594년 2월 16일 자 난중일기다.

수령즉엄악포계(守令則俺惡褒啓) 수령들은 뇌물받고 비리 덮어주고 포상받게 해주었다.

기망천청지어차극(欺罔天聽至於此極) 국왕의 귀를 기망하니 이것이 극에 달했다.

국사여시만무평정지리(國事如是萬無平定之理) 국사가 이러니 나라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양옥이이(仰屋而已) 나는 그냥 천장만 바라볼 뿐이다.

오호 애재(哀哉)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탄식이 들려오는 듯하다. ㉠

“단군 고조선사는 중국사의 일부 아니다”

중국 역사 왜곡은 역사 패권주의 에서 비롯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 역사연구가

중국이 우리 고대사 왜곡과 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면 중국의 역사 왜곡과 강탈은 중화제국주의-역사패권주의에서 비롯됐다. 몽골·티베트·신장의 역사를 강탈한 것처럼 한국 고대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둔갑시켜 우리 민족사를 말살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사학계는 ‘고조선은 처음부터 중국 주(周)나라의 지방정권이였다. 삼한은 은(殷)나라의 유민이 한반도로 망명해 성립한 나라였다.’ 고 왜곡한다. 단군왕검의 고조선이 중국의 주나라, 은나라 이전에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외면한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던 데서 나아가 ‘고조선과 삼한 전 영토가 중국사의 일부였다.’ 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 관변 사학계가 이런 식으로 강공을 펴는데도 한국 사학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요하 지역의 요녕성 홍산(紅山)과 네이멍구 적봉(赤峰), 발해 연안, 요동반도와 만주는 고조선문명의 발상지요, 한민족사의 요람이었다. 고조선에 이어 부여·고구려·발해가 차례로 일어난 우리 고대사의 중심지였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구려사·발해사 강탈도 모자라 이제는 동이족(東夷族)의 동북아 고대문명 전체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문명사의 강탈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어찌하여 이런 역사 왜곡의 망발을 자행하는가. 그동안 중국사의 시작은 황하문명설이 주류로 자리잡아 왔었다. 그러나 최근 발해만·요하 지역에서 황하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신석기·청동기 유적이 대거 발굴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비파형동검·돌널무덤·석성 등 한국고대사 - 고조선의 특징인 유물유적이 대거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학계와 정부로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한 것은 기원전 1700~1100년대의 은허(殷墟)보다 훨씬 오래전의 갑골문(甲骨文)이 이 지역에서 출토된 사실이다. 이는 결국 고조선의 발해 연안 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앞섰다는 움직일 수 없는 반증이다.

중국인들의 비뚤어진 한국역사관은 뿌리가 깊다.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던 속국’이었다는 인식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다. 고대에는 조공과 책봉이 일종의 외교관계였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홍산문화 제2발굴지점에 세워진 비석.

중국이 동북공정이나 서남공정이나 탐원공정이나 단대공정이나 하면서 중국사 준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소수민족의 봉기로 중국이 다시 남북조 시대나 5호16국시대처럼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티베트와 신장은 설새없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천리와 순리를 거역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결말이 좋을 수가

중국이 끊임없이 만리장성 동단을 늘리는 저의도 결국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영토였던 요서·요동·만주가 모두 중국의 영토였고, 이 땅에 세워졌던 나라는 모두가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란 날조된 궤변 망언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중국의 우리 고대사 왜곡과 탈취 기도는 거의 편집광적이다.

요녕성 홍산·만주는 고조선 문명의 발상지 홍산 유적지는 황하문명 보다 1000년 앞서

없다.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있던 나라가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중국사의 일부란 중국 어용사학자들의 궤변은 역사공부를 다시 해야 할 수준 이하의 망발이다.

고구려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고구려가 과연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바치던 지방정권이었던가. 고구려는 서기전 3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28왕 705년을 유지했다. 그동안 중국 땅에는 후한부터 당까지 무려 33개 나라가 있었는데, 200년 이상 지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오래 간 나라가 196년을 유지한 후한이요, 그 다음이 103년인 동진이다. 심지어는 왕이 1명뿐인 남북조시대의 동위나, 겨우 7년 만에 망한 후량같은 하루살이제국도 수두룩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웅호걸이 등장했다는 위(魏)·오(吳)·촉(蜀) 삼국의 왕이 모두 11명에 60년도 가지 못했다. 또 신라와 합세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도 20대 290년을 이어갔을 뿐이다. 고구려가 ‘속국’으로 있던 705년 동안 중국에선 33개 나라의 흥망이 무상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본국’이 어찌 있던 말인가! 사실(史實)이 이렇에도 중국 관변학자들은 입만 열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한다.

중국은 그 동안 중원이 천하의 중심이고, 주변국은 모두 동이(東夷)·서융(西戎)·남蠻(南蠻)·북적(北狄) 오랑캐라는 오만방자한 중화사상과 역사패권주의로 일관했는데 이제는 요하문명이 황하문명과 합쳐져 중국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중국 한족(漢族)의 조상이라는 황제(黃帝)의 고향이 만리장성 북쪽인 이곳 요하 지역이라고 강변한다.

뿐만 아니라 황제도 ‘동이족의 수장으로 중국인 조상의 한 사람’이며, 황제와 싸운 동이족의 군장 치우(蚩尤)도 한족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런 역사 왜곡과 강탈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계속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영어교육에 기울이는 열성의 절반이라도 역사교육에 쏟아보라.

우리 학계도 한·중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여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과 탈취에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로 중국의 지방정권인 조선성(朝鮮省)이나 조선자치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역사를 지키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

회우가 낸 새책

백인호 회우 '효성 오디세이아'



조흥제 효성그룹 창업 회장은 특별한 사업 이력의 소유자다. 조 회장은 생애 최초의 사업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과 동업 형태로 시작했다. 두 회장은 1948년 삼성물산 공사를 설립, 무역업으로 출발했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 무역은 보잘 것 없었고 수입 무역만 왕성했다.

해방 이후 생필품 전체를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는 형편이었고, 특히 설탕은 전량 수입으로 해결했다. 이 와중에 삼성물산은 설탕 수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조 회장은 이를 주도했다. 조 회장은 당시 제일제당 사장을 지냈고, 55세 때 이병철 회장의 요구로 삼성과 결별, 독자 기업 효성물산을 창립했다. 효성그룹은 이후 재계 5위에 랭크되는 등 일취월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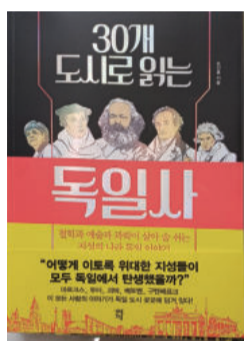
조 회장이 고향의 한학을 버리고 신학문을 접한 것은 17세로 '늦둥이'였다. 완고한 그의 조부는 조 회장의 서울 유학을 극구 반대했고 조 회장은 골방에서 단식 투쟁으로 맞선 끝에 가까스로 서울 유학의 허락을 받아냈다. 조 회장은 서울 중앙고보(교주 인촌 김성수)에 진학했고 반장과 응원단장을 지냈다. 문제는 응원단장이었다. 그는 1926년, 6.10 만

세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도 치렀다. 중앙고보에서 퇴학당한 뒤 조선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 일본으로 유학, 사학 명문 호세이(法政)대학을 졸업했다.

조 회장은 순수하고 원리원칙에 충실했다는 평판이었다. 예컨대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 혁명 특별재판부에서 부정축재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다른 기업의 총수들은 대부분 책임을 회피 임원들에게 전가했으나 조 회장은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피고 입장이었던 손인상 전 부흥부 장관은 그의 인품에 매료되어 조 회장과 사돈 관계를 맺기도 했다. 조 회장 장남(조석래)과 손 장관 딸(손광자)이 결혼한 것이다.

도서출판 정음서원 출간 신국판 375페이지
값22,000원

30개 도시로 읽는 독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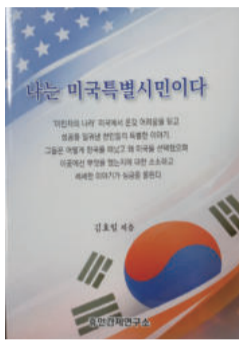


독일만큼 각 도시의 역사가 곧 세계사인 나라도 없다. 전범 재판이 열린 뉘른베르크, 포츠담 회담의 도시 포츠담,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 보름스, 바이마르 헌법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산실 바이마르 등 도시 하나 하나가 굵직한 세계사와 맞물려 있다. 혼란과 발전 속에서 각 도시가 꽃피운 문화적 결과물 또한 독일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소다. 독일

의 도시들은 어떻게 괴테, 실러, 마르크스, 바흐, 헨델, 베토벤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여 철학과 예술을 융성하게 발전 시켰을까?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이자 철학과 과학의 나라 독일, '노잼 나라' 라는 오명을 벗겨내고 우리가 몰랐던 독일의 위대한 어제와 오늘을 낱알이 파헤친 책이다.

신국판 495페이지 값 25,000원

김호일 회우 "나는 미국특별시민이다"



'이민의 나라'미국에서 숭한 역경을 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낸 18명의 재미 동포 성공담을 책으로 엮은 '나는 미국특별시민이다'가 출간됐다. 김호일(본회회우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필자는 석달간 미국 동남부를 훑어가며 성공한 한인들을 수소문 해 나갔다. 애틀랜타가 속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그리고 멀리는 플로리다까지 미국 동남부를 샅샅이 뒤진 것이다. 그렇다고 돈 많은 부자들을 선정한 것은 아니었다. 크든 작든 성공과 함께 동포사회에 기여를 얼마 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선정기준이었다. 한국학교, 동남부총연합회, 재미상공인회 등 동포사회에 대한 기부와 봉사에 누구보다 헌신적인사람들을 골랐다.

휴먼경제연구소 출간 값30,000원

명품인생

美-이란戰 트럼프 대통령의 결자해지

'조자룡 한 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맹장 조자룡(조운)은 그러고 보면 다른 장수들에 비해 특별한 전용 무기가 없는듯하다. 그러나 마상에선 역시 칼보다 창을 스는 모습이 제격이다. 조자룡이 새 칼이 없어서 한 칼을 쓰는 것인지, 칼 한자루를 오래 써서 한 칼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조자룡의 한 칼'에 대한 유래는 애매하다. 조자룡은 창을 아주 잘 쓰지만 칼 또한 그의 손에 잡히면 맹위를 떨친다. '조자룡 한 칼'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상징일 것이다.

조자룡의 유명한 장관과 전투가 있다. 주군 유비의 아들 유선을 갑옷 속에 품고 조조의 대군 속을 헤치고 나갈 때 자신의 창날이 무디어자적의 무기를 뺏어 썼다. 한 창이든 한 칼이든 그의 손에 쥐어지면 조자룡의 무기가 되었다.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는 멋스런 청룡언월도를 쓰고 장비는 길이가 여덟 자나 된다는 장팔사모를 휘두른다. 이 무기들은 영웅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도구다. 조자룡이 뛰어난 장수라도 창이나 칼이 없으면 자

신을 지키기 어렵다. 지금 중동에선 미-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의 우라늄 쟁탈전이다. 이란이 오랜 동안 고심하며 농축해온 그 괴물단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마치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들을 조자룡의 한 칼 쓰듯 날려 보냈다.

가마솥 밑 불타고 있는 불을 꺼라

결과는 미지수다. 누가 이기고 지든 세계가 위협에 처해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를 찾기 마련이다. 우리하늘에 당장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자신을 지키는데 빈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를 겁없이 탄다. 그 안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를 위해 그 노력은 철저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만큼 트립

프를 신뢰할 수 있을까. 높은 곳에 위치하면 언제나 떨어질 위험이 있다. '날개가 있는 것은 추락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높은 곳에서의 안전성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는 고공의 위험 즉 추

락사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망망(防網)을 설치한다. 야구의 방망이가 아니라 'safety net' 즉 안전망을 이르는 말이다. 고소작업 중에 추락한 작업자를 아랫 쪽에서 받아내기 위한 그물로 높이 2m 이상의 작업개소에서 추락할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한다. 그러나 발판, 울,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방망을 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나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 것인가. 어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오라.

지금 우리는 삼국지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금의 빈틈을 두어서도 안 된다. 조자룡이 칼을 찡기듯. 중국의 병법서에 36계(三十六計)가 있다. 병법에 있어서의 전술 36개를 6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모은 것이다. 만들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개 5세기까지의 고사(故事)를 17세기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36계 중 제19계로 기록되어 있는 '부저추신(釜底抽薪)'은 이번 미-이란 전쟁에 관한만한 충고다. 가마솥 밑에서 불타고 있는 장작을 꺼낸다는 뜻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말인데 "끓는 물을 식히려고 찬물을 부어도, 끓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 진실로 그 근본을 안다면, 솥 밑에서 타고 있는 불을 치워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일러준다. 결자해지(結者解之)와도 통하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하지않을까.☞

〈강이산·극작가〉

된장찌개, 텅텅하고 구수한 ‘한국의 맛’

맛 순례 ④

야생 ‘들콩’ 기원전 10세기 한반도서 재배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된장찌개가 없는 한국인의 식탁은 상상할 수 없다.

“된장찌개는 무엇보다 그 텅텅하고 구수한 맛에 생명이 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그 냄새는 고향의 안식처 같은 포근함을 준다”고 법정스님은 된장찌개를 예찬했다. 된장찌개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즉 식구(食口)라는 의미의 가족 공동체를 성립하게 하는 기본 먹거리다.

식탁 가운데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덜거나 직접 손가락으로 떠먹으면서 서로의 체취를 맡으며 식구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음식인 것이다.

된장이라는 어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물기가 빠져 딱딱한 상태를 우리말로 ‘되다’라고 한다. 메주로 장(醬)을 담가 숙성시킨 뒤 장물 즉 간장은 떠내고 남은 건더기를 다시 ‘되게’ 숙성시킨 것이 된장이다.

이때 떠낸 장물이 음식의 ‘간’을 맞추는 간장인데 이 말도 순수 우리말이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된장찌개를 먹었다. 된장의 원재료인 콩의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만주와 한반도에서 콩의 조상인 야생 ‘들콩’을 기원전 10세기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기원전 7세기께 중국으로 전파됐고 그 뒤 일본과 동남아에 전해졌다.

작년 9월3일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앞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합창단이 향일 노래 ‘송화강변에서’를 불렀는데 이 가사에 만주가 콩의 지대임을 표현하고 있다.

“내 고향은 송화강변 / 산과 들에는 콩과 수수로 가득하고(還有那滿山遍野大豆高粱) /…”

1931년 ‘9·18사변’으로 만주지방을 잃고 떠도는 피란민들의 슬픔과 고향 탈환의 굳센 의지를 담은 대표적 중

국 향일 가곡이다.

우리나라의 장 담그는 풍습은 중국의 삼국지 위지(魏誌) 동이전(東夷傳)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고 신라 신문왕이 왕비에게 보낸 폐백 품목에 간장을 뜻하는 ‘장(醬)’과 메주를 뜻하는 ‘시(豉)’가 있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된장이 일반 백성들의 식생활에 자리 잡은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이 시기부터 콩으로 쪄낸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는 한국 특색의 방식이 체계화됐다.

신라 신문왕 왕비 폐백 품목에 장·메주 담겨 뚝배기에 향수와 그리움 가득한 ‘어머니의 손맛’

조선조에 들어 더욱 정교해지면서 장맛이 음식 맛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가 된다. 양반 종택 등에서는 몇 대에 걸쳐 씨 된장과 씨 간장을 보물처럼 이어오면서 가문의 맛을 자랑한다.

중국의 춘장(春醬)이나 일본의 미소(味噌)는 콩에 밀이나 쌀 등 곡물을 섞어 발효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된장은 오직 메주로만 발효하여 단백질 함량이 높고 맛이 깊고 진한 것이 특징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시 아욱된장국(葵羹)에서

“… / 나물 된장국을 끓여 만드니 / 맛이 양고기보다 낫구나 /”

라고 읊었고 시인 안도현은 시 ‘된장찌개’를 통해

“뚝배기 안에서 / 보글보글 끓으며 / 세상의 온갖 소리 다 받아내다가 // 식탁의 중심에 앉아 / 온가족의 손가

락을 부르는 / 저 넉넉하고 둥근 마음”이라고 했다.

또 나희덕은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면, 비로소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나 된장찌개를 주 메뉴에 올린 식당은 그리 흔하지 않다. 대부분 보조적인 메뉴이다.

고기를 먹거나 메인 디쉬를 가진 뒤 밥과 같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끔 비범한 맛의 된장찌개를 발견하곤 한다. 서울 언론회관 19층 프레스클럽 된장찌개는 간

역사를 갖고 있다.

구황식품인 초근목피가 풍요로운 오늘 날에 오히려 건강식품으로 다가와 아이러니하다.

단백질이 거의 없는 초근목피를 먹고도 우리 민족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단백질 덩어리인 된장의 공이 컸다.

‘백성은 먹는 것이 제일 중요(民以食爲天)’한데 조선조가 5백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가난’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있으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시대인지 자부심

이 맛이다.

깨끗하게 조리된 찌개에 백합조개가 돋보인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다동 ‘오륙도’의 된장찌개도 훌륭하다. 송송썰어 넣은 대파와 고기가 뿔어내는 향기로운 맛은 분명 밥도둑이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또순이집’,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된장찌개, 안동 성전식당의 묵힌 된장의 깊은 찌개 맛은 잊을 수 없는 맛이다.

된장찌개 종류 또한 다양하다. 소재에 따라 차돌박이 된장찌개, 해물된장찌개, 우렁된장찌개, 달래, 냉이 된장찌개 등 얼마든지 분류할 수 있고 콩의 발효과정이 일반 된장과 다른 청국장찌개도 훌륭한 맛이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산업화 이전 5천년 기간 봄이면 어김없이 양곡이 바다나 산과 들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해온 아픈

을 느낀다.

옛날 어릴 때에는 봄이 오는 길목쯤 집집마다 장을 담그는 것이 중요한 집안 행사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시골 이외에는 거의 보기 힘들다.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된장이 보편화되어 장맛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된장찌개의 맛은 육수와 찌개에 넣는 재료, 특히 정성과 손맛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마구잡이로 썬 것 같아 보이는 호박이나 두부도 손질 방법 등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진다. 말하면 손맛이다.

제일의 손맛은 어릴 때 먹었던 어머니의 손맛이다. 어머니의 손맛은 향수가 있고 그리움이 있다. 그리고 고향의 냄새이다. 입맛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맡아 포근한 맛인데 잊지 못하는 게 어찌 나만의 향수가겠는가.☞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3.25 ~ 2026.4.26>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한영섭 회우 찬조금
1,000,000원**

회비

조덕동(2026) 30,000	김윤찬(2026) 30,000
배학철(평생회비) 30,000	박승구(2026) 30,000
오경자(2026) 30,000	전용호(2026) 30,000
서옥식(2026) 30,000	

올곧게 언론수호에 몸바친 선배 백환기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영전에

백환기 부회장님! 4월 10일 오후, 존경하는 부회장님의 부음을 듣고 눈물과 동시에 극한의 고통을 이젠 멈추셨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무실에 나와서 회장님과 저, 셋이 많은 대화를 하며 언론인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우셨어요. 그때 놀랍게도 항상 남 원망, 탄식없이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올곧고 치밀하고, 극도의 인내심과 꼼꼼함, 정의감, 초인적인 기억력과 정신력으로 뭉쳐 84년간 사셨지만 후반 인생은 남다른 질곡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42년생, 전주 명문가의 후손으로 경기고,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수재인 선배님은 외교관, 교수로 적합한 자질을 가지셨고 동아일보 기자로서 남이 부러워할 삶을 사시던 중 전두환의 언론탄압에 맞서서 '언론수호동아투위'의 선두에서 언론자유를 외치다가 강제 해직당했습니다. 재취업도 금지되자 잠시 월간 <인물계>를 발행하다가, 다시 생소한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는 엄청난 빚더미와, 은행 계좌 압류 후, 낮은 파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해서 철저히 금주 금연 지키며 의연하게 버티셨죠. 김대중 정권 때 복권돼 잠시동안 동아일보 편집위원 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다 멈추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후 2016년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이 취임할 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사무총장이된 저와 처음 만났죠.

선배님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사

나름대로 평온한 시간을 보낸 2018년 중반 어느날, 참아온 스트레스 탓인 듯, 눈에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겹쳐 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월요일마다 손으로 더듬거리며 우리 사무실에 나오셨어요. 실명 전의 기억을 되돌려서 파주에서 몇걸음 가면 마을버스 정거장, 그다음 하차 후 얼마 걸으면 전철역...그런식으로 더듬으며 오셨죠. 임기 4년 후 당시 집행부 임원들이 매월 정기모임을 가지는데 선배님도 2024년 10월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문득 연락두절이 되어 수소문하다가 위례요양병원으로 이병대 회장님과 문병을 갔죠. 2024년 11월 코로나, 한 달 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실명이 겹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이 누운 채 오직 정신만 또렷했습니다. 임종 순간 담당 의사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100% 치매에 걸리는데 이 환자는 정신건강이 완벽해 뇌구조가 연구 대상이다." 라고 했대요.

마지막 인사 올립니다. 고통없는 천국까지 밝은 눈으로 꽃길만 따라서, 사뿐사뿐 당당하게 특유의 눈웃음을 지으며 가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소서.

이향숙 (본회 부회장)

만보회 '여의도 공원'의 초록봄을 노닐다

만보회 21차 모임...마포대교 횡단하며 전원 1만보 달성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달 21일 꽃샘추위 속 '여의도 공원'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걷기 모임을 가졌다.



여의도 공원은 1999년 1월 검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도심과 숲을 잇는 녹색 나들목으로 거듭난, 누구나 쉽게 자연을 접하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날 회원들은 철쭉 등이 만개한 꽃길과 녹색의 봄이 어우러진 대공원을 걸으며, 잔인한 4월의 끝자락에서 찬란한 봄날의 향과 풍광을 즐기는 행복

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회원들은 여의도 공원을 산책한 후에 마포대교(총 3.8km)를 횡단해 모두가 1만보를 완주했다.

참석자 : 강두모, 김조영, 김윤찬, 김홍운, 박교원, 안종우, 안홍렬, 이우진, 설임윤, 장 옥,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총무 최영배>

회우 동정

수필문학진흥회이사 선임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이 지난 3월1일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로 선임됐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는 계간 에세이문학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2026년 봄호(통권 173호)를 출간했다.

'연회동 민 비서관' 출간



민정기 본회 회우(전 대통령 비서관)는 비망록 '연회동 40년 민 비서관' 출간을 계기로 '월간조선' 2월호에 와이드 인터뷰 게재가 뒤늦게 알려졌다.

독립신문 130주년 강연



정진석(본회 명예회원)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지난 4월 10일 독립신문 130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 국제회의장에서 재능기부 강연을 했다.

'권노갑 백인평전' 서평 발표



김택근 본회 회우(전 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최근 출간된 '권노갑 백인평전' 서평을 '현정' 4월호에 발표했다.

'96세 청년' 권노갑의 발자취를 목격한 필치로 풀어냈다.

언론가 단신

김이경 박현수 부회장 선임 서울신문사우회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김소유)는 지난 3월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자문위원 및 이사 합동회의를 갖고 제7대 김소유 회장 연임을 확정했다. 대한언론인회 김이경(왼쪽), 박현수(오른쪽) 회우는 부회장에 선임됐고 김동준 권기진 김윤찬 김종일 박종서(본회 사무총장)회우가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소강체육대상 시상식

소강 민관체육영재단(이사장 정대철)은 제18회 소강체육대상 시상식을 오는 5월7일(목) 11시30분 호텔 코리아나크리스탈 에메랄드룸(2층)에서 개최한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국장 송 창 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환기 회우(전 동아일보 기자)4월10일 별세 향년 84세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박창래 회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스페이스본 102동 210호

청춘양구

양구 9경 구경갈새는



4경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3경 두타연



2경 한반도섬



1경 양구수목원



9경 광치계곡



5경 양구백자박물관



8경 상무릉 출렁다리



6경 편치볼



7경 양구봉화산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튼튼하게
탄탄하게
든든하게

튼튼 탄탄 든든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론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